

2008년 7월 3일 말씀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신청해놓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쫓아다니면서 배워야 합니다. 노련하게 해야 합니다.

제주도 옛날에 내가 한 명 데리고 붙잡고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주도에 교회가 8개나 됩니다. 몇 명 데리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은소리 만드는 사람들이 코치해 달라고 해서 대폭적으로 크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한 6군데 지적했다고 광고 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홍보책자는 뭔가 훑어보기 때문에 사진을 작게 넣은 곳은 크게 확확 넣고 글씨도 너무 작게 넣으면 보이지 않으니 글씨도 크게 넣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급하게 글을 써서 썼지만 앞으로는 글 내용도 더 잘 쓸 것입니다. 홍보를 잘하면 최고입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책이 여러 수만 명의 나라 사람과 똑 같은 것입니다. 조은소리는 지원받아서 계속 밀어 붙여야 됩니다. 홍보책자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만들어보십시오.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수련회 준비로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청중 속에 살 던 사람은 청중 속에 들여보내야 됩니다. 내 대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내 대신 조금만 해주면 됩니다. 내 대신 하면 애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내 대신 일을 해주십시오. 내가 코치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많은 곡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바로 노래로 만들 사람이 필요 합니다. 이 곡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 때 발표하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그냥 놔두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노래로 부르면 그걸 듣고 악보로 적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8월 달에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볼을 차도 1700리 뛰었기에 잘 찰 수 있습니다. 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행사준비 잘 하도록 하십시오.

중고등부는 많이 늘어서 한 1년만 더하면 2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밀어부쳐야 됩니다. 내가 작곡해준 노래로 불길을 일으켜야 합니다.